

# PEOPLE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 영광 이장단협의회

### 해상풍력 발전사업 설명회 성료

영광군 이장단협의회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협의회는 최근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00여명의 군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방향, 재생에너지 개발이유, 공유·제도, 경제적 효과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해상풍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영광군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 산업을 강조했다.

영광군 이장단협의회와 해상풍력 이장단협의회는 설명회를 계기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g98@gwangnam.co.kr



## 광주경총, 김봉중 교수 초청 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영호)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김봉중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표현이 바뀌는 일상의 민주주의' 주제로 제1697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봉중 교수는 전남대 사학과, 미국 샌디에이고 시립대 사학과와 조지아 대학을 비롯해 한국미국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에서 선정된 '이만쯤 가까운 미국', '미국을 안다는 착각',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 '미국을 움직이는 네 가지 힘', '30개 도서로 읽는 미국사'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미국 민주주의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인문학과 일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부정적인 대화보다 긍정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청진과 자신감, 용기,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광주·전남 권역 심뇌혈관센터

###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기 혈관 숫자'는 혈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의미하며,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관리가 중요하다.

캠페인은 '20대부터 꾸준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로 우리 모두 건강 동행'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혈압, 혈당 측정과 건강상담, 심방세동 검사, CO 측정·상담 등 다양한 검사와 이벤트는 물론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산화탄소 기자 goback@

##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 “젊은층 소비 트렌드 읽고 새로운 기회 선점해야”

이준영 상명대 교수, 소비트렌드 흐름 주제 강연  
옴니보어·토픽경제·기후감수성 등 키워드 소개

“트렌드 변화를 읽고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소비 시장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이준영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주요 흐름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일정 기간 소비자들이 동조하는 변화된 가치에 대한 열망을 '트렌드'로 정의하고 이를 읽어내야만 고객 심리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에서 선도로 뛰어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흐름을 감지하고 앞서 나가는 전략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선도하거나 미래를 이끌 트렌드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흐름과 시대상을 결합한 경우가 많다”며 '뉴트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신선한 매력을 찾는 젊은 세대의 소비와 추억을 소환하는 증강현실의 공감이 결합해 형성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브랜드 복각 제품의 인기, 아날로그 감성 디자인, 레코드판 매출 상승 등이 이를 입증한다”며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오히려 과거에 대한 신뢰감이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준영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지난 12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주요 흐름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그는 최근 소비시장에서 포착되는 주요 변화 흐름을 설명하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10대 키워드를 소개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 다양한 취향을 수용하는 '옴니보어', 특별한 행복을 과시하기보다 무난하고 평온한 일상에 가치를 두는 '아보버', 기성품에 자신만의 개성을 덧입히는 '토픽경제', 기술에 얼굴과 감정을 입히며 사람과 닮은 경험을 제공하는 '페이스 테크', 사회적 갈등과 불안 속에서 무해하고 귀여운 존재를 찾는 '무해력'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다문화화 흐름을 반영하는 '그라데이션K', 디지털 시대에도 손에 잡히는 체험을 강조하는 '물성매력', 기후위기를 살 속

에서 직접 체험하며 대응하는 '기후감수성', 산업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진화 전략', 그리고 큰 성공보다 작은 성취를 중시하는 '원포인트업'이 함께 제시됐다.

이 교수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단순한 소비 유행의 나열이 아닌, 향후 기업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영 교수는 “트렌드는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결합해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을 선점하는 기업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육아 아빠들 뭉쳤다”...광주시, 육친소데이 눈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광주김치타운서 아빠육아 멘토링 진행

광주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13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육아 멘토링(육친소데이) & 아빠랑 떠나는 김치박물관 탐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130여명의 참석 가족들은 찾아가는 육아멘토링, 깎두기 담그기 체험, 킴링 만들기, 김치박물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소통과 교감을 나눴다.

'광주 100인의 아빠단'에서 활동하는 아빠들이 참여해 직접 육아 경험을 공유하며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장이 됐다.

광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빠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정서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가족친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인숙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은 “멘토아빠의 육아 꿀팁 강연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초보 아빠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육아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광주시민을 위한 일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지난 13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육아 멘토링(육친소데이) & 아빠랑 떠나는 김치박물관 탐험' 프로그램에 참석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축사를 한 후 '광주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아빠 모임으로, 3~9세 자녀를 둔 아빠들이 참여해 육아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한다. 올해 제7기 아빠단은 123명으로 구성된 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도,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서 최우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난임부부 맞춤형 치료 지원 성과

전남도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호텔에서 열린 성과대회에서 전남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며 서비스 질 제고와 지자체 확산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시군-전남한의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난임부부 대상 맞춤형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대상자의 체질·생활습관 분석을 바탕으로 한방 처방을 하고, 주 1회 이상 한의사 상담과 부부 동반 치료를 병행하는 맞춤형 방식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연윤환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체질 개선과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혜택을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동구, 청림지킴이 워크숍 인택 동구청청과 구청 청림지킴이 직원들이 지난 12일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청림 전문가 특강, 과제별 토의 및 발표를 하는 등 청림지킴이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 이중근 노인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 서명부 국회 전달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 40만명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1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최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40만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부영그룹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 유엔장성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며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



해 목숨 걸고 싸운 유엔군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방예지국의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나주시, '로컬콘텐츠페스타' 경제부문 대상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1일 광주 KBC광주방송 본사에서 열린 '2025로컬콘텐츠페스타' 시상식에 참석해 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나주시